

# 영광대파 홍콩 첫 수출길... 글로벌 시장 개척 기대

## 품질검증 마쳐 수출기반 마련 소비자 맞춤·품질향상 주력

영광산 대파가 첫 홍콩시장 수출길에 올랐다. 최근 홍콩시장 품질검증을 완료해 수출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영광산 양파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1일 백수읍 사무소 광장에서 대파 산업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대파 홍콩 수출 실증 상차식'을 개최했다.

행사 개최 목적으로는 영광군에서 재배하는 대파를 해외로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품질 검증, 가격 형성, 선호도 조사' 등 시장성과 사전검증을 받는 수출 실증의 일환이며 검증된 결과를 토대로

영광대파 품질향상과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상품화에 노력을 기하기 위함이다.

영광 생산지에서 수확한 대파가 해외로 수출 시 유통과정에 발생하는 청엽갈변(변색), 물러짐, 저장성 저하 등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수출상품에 품질관리에 중점을 뒀다.

이날 상차식에는 영광군, 영광군의회,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전남농업기술원, 지역농협 관계자 등 참석으로 영광대파가 해외로 진출하는 인지도 제고와 수출기반마련 방안 강구에 관심이 높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대파가 홍콩 시장 진출의 첫걸음을 놓았다. 영광대파는 맛과 품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우수한 만큼 영광군 농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지난 1일 백수읍에서 대파 홍콩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영광군 제공

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 연구소 관계자는 "영광군과의 대파작목

연중생산 체계 구축과 연구 기술지원 업무협약의 첫 성과"라며 "홍콩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상품이 되도록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 부부갈등 해소 가족 상담 진행 함평군가족센터

함평군가족센터(센터장 김기영)는 부부갈등, 자녀문제 등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가족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군민을 대상으로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성격검사, 진로적성검사 등 대면·비대면을 활용해 제공한다.

가족상담 서비스는 12월까지 연중 신청받고 있으며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위급한 상황(재난상황·자살시도·이혼·위기 사례 등)인 경우 우선 제공된다.

문의는 전화(061-324-5430-1) 또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 불갑저수지서 전국수상스키대회 영광군, 8~11일

영광군은 8~11일 불갑저수지 수상스키장에서 제36회 전국 남녀학생종별 수상스키·웨이크보드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와 전남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50개 팀 300여명의 선수·임원들이 참가하여 웨이크보드, 웨이크서프, 점프, 슬라롬, 트릭 5종목에서 열띤 경기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불갑저수지 수상스키장은 오는 10월 개최될 제104회 전국체전 수상스키·웨이크보드 경기가 열리며 전국 수상스포츠 경기장 중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

여름철 대표 수상레저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수상스키는 피서와 운동을 한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마니아들이 늘고 있다. 영광군도 이에 대응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전국 규모 수상스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 청년취업자 주거비 추가 지원 화순군, 전월세 거주 청년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최대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화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

추가모집 규모는 13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며 주택소유자,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와 관련된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일까지며 신청서류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usun.go.kr 고시 공고)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영광군 총무과, 마늘농가 일손돕기 영광군 총무과 직원 15명이 지난 5일 백수읍 장산리 마늘 농가에서 마늘수확과 마늘대 자르기 등 농사일을 거들며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영광군 제공

## 영광군,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 선정... 국비 300억 확보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군은 공모를 통해 국비 3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33억원을 확보했다.

농촌협약은 농림부와 지자체가 협업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의 정책수립 방향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영광군은 '음식·관광·에너지로 열어가'는 스마트 영광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영광군 생활권 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유류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농촌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영광군은 농식품부와 '농촌 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

인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를 투입해 농촌협약 계획에 담긴 정책과제 이행과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협약을 순조롭게 이행해 살고 싶은 영광군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 전남농기원, 청년농업인 대상 라이브커머스 지원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도내 농식품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교육 △온라인몰 입점 위한 홍보자료 제작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방송 운영 지원 등이며 5월~11월까지 남도장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리얼커머스에서 수행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청년농업인이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온라인상에서 농식품의 직거래 판로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침이다.

동영상을 활용해 도내 농장을 소개하고 쇼츠스트와 청년농업인이 출연하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도내 농식품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며 농식품 실질구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홍재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도내 농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판매 등 수도권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재 기자

## '담양군 민원톡' 확대 운영 비대면 소외이웃 제보 기능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복지 사각지대 선제 발굴을 위해 '담양군 민원톡'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담양군 민원톡은 주민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지난 3월 개설된 신고창구(카카오톡 채널)로 민원을 처리하며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민원톡을 활용,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기동대 등 지역인적안전망 위기가구 발굴단 1300여 명에게 '담양군 민원톡' 가입을 홍보한다.

채널에 가입한 위기가구 발굴단은 1대 1 대화 기능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제보할 수 있다.

위기 발굴단 신고 외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맞춤형 상담과 지원하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선용 기자

## 나주형 탄소중립 정책 모색 나주시의회

나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인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연구회'는 선진지견학 일환으로 지난달 25~26일 부산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다녀왔다고 6일 밝혔다.

기후환경, 에너지 분야의 최신기술과 정책을 선보인 '2023 부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견학은 나주형 탄소중립 정책 마련을 위한 벤치마킹 일환으로 다녀왔다.

황광민 부의장, 김철민 연구회 대표 시의원, 홍영섭·최정기 등 4명 시의원들은 탄소중립 컨퍼런스, 전시회 관람, 부산패기전 회수센터를 방문했다.

연구회는 친환경 처리, 고효율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 일자리 창출 기여하는 부산 최초 자원순환 사회적기업 '에코라이프살림'도 방문해 나주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모색했다.

김철민 나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연구회' 대표 시의원은 "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통해 다층적인 글로벌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갖고 이후 나주시의 정책 입안 준비에 선제적으로 학습할 좋은 기회가 됐다"며 "기후기술 활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탄소중립 연구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주=박승엽 기자